

십자가의 복음

신학박사 조덕운

[고린도전서 1:22-25]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24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물리적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그 위에서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심벌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그 중심이 되지 않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못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위의 고린도 전서 교회에 보낸 서신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두가지 성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 보면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능력 때문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주어진 본연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 동편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은 엄청난 따스함과 빛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능력있는 존재를 온 태양계에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에 이러한 커다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유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십자가에 매우 큰 능력을 부여하시어 이 십자가 희생을 믿고, 회개하면서 나아오는 모든 죄인들이 그들의 과거 죄짓고 영적으로 죽어가던 허망한 인생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아 아들 딸이 되어 그분의 거룩한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적인 은사를 받는 인생 전환의 능력이 작용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이 능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죄인의 인생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신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계획, 즉 인간들을 죄짓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자 하는 간계를 상하여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임을 태초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 2 천년 전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33년 반 후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인간 구원 계획의 중심 역할을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탄의 손아귀, 즉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능력의 사역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인의 기적적인 인생 전환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생애 대하여 죽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전환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전환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작용하며, 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희생물으로써 죽으심으로써 회개하는 신자의 믿음을 통하여 발현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회개하고 믿게 된 죄인의 인생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19-20]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둘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하여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물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이해하기 힘든 아가페 사랑을 선포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선하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고, 죄없는 분이 중죄인의 처벌인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희생의 모습을 하늘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셨고, 그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단번에 드리는 대속물로 받아들이셨고, 그러한 순종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자신의 우편 왕좌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혜에 반하는 하나님 만의 지혜에 의한 희생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자기 편의 이익과 번성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 세상의 대부분 지혜자와 능력자들이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그만치 사랑하셔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아드님의 순종과 협력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반 세상에 대한 지혜에 바탕을 둔 인간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십자가까지 담대히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6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마귀의 굴레, 즉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 동산, 즉 천국으로 가도록 인생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 전환의 능력은 오직 죄 없는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속죄양으로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고 그 능력에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희생은 단 한번에 바쳐져서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사귀를 나누던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간 구원 계획의 지혜는 얼마나 신비스럽고 심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합입어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구원 받게된 우리의 축복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요! 그 십자가 능력을 믿고 주 예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대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게된 구원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입었으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러한 큰 희생을 값없이 치르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피조물 인간에 대한 크신 아가페 사랑의 폭과 깊이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장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원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